

조물주가 빚어낸 장중한 스케일이다. 수백 미터 높이의 송곳 같은 석봉들이 병풍처럼 즐비하다. 그 사이로 구름이 살짝 흐른다. 말로만 들던 선계(仙界)다. 살아있는 자연 그대로의 산수화다. 중국 호남성 서북부에 위치한 장가계(張家界)를 본 소감이다. 과연 중국사람들이 그 신비로운 산세로 인해 '사람이 태어나 장자계에 가보지 않았다면 100세가 되어도 어찌 늙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人生不到張家界 白髮豈能稱老翁)'라는 말이 나올만 하다.

경치에 감동하고 고찰에서 불심 충전

천하의 비경 장가계와 원가계

장가계는 워낙 넓고 방대한 장가계 국가삼림공원, 천자산자연보호구, 사계육자연보호구 등 3개 지역으로 나뉜다. 장가계 국가삼림공원에서는 수직으로 치솟은 326m높이의 백룡엘리베이터를 타고 산 정상에 오르면 중심풍경구인 원가계의 절경과 만나는데 보는 순간 숨을 멎게 만든다. 협곡에서 솟은 바위봉우리가 사람의 혼을 뿜 정도로 아름답다는 미혼대(迷魂臺) 아래의 원가계 절경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준다. 후화원으로도 불리는 원가계의 천하제일교는 높이 300m의 커다란 바위 두 개에 약 길이 50m의 다리를 연결한 세계 최고높이의 다리다.

천자산자연보호구의 천자산(天子山) 또한 하나의 산수화다. 해발 2084m의 천자산은 현재 2km 길이의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다. 케이블카 차량 밖으로 펼쳐지는 협곡과 숲, 그리고 수천 개의 석봉들은 상상을 초월한다. 천자산 정상에서 버스로 5분쯤 이동하면 하룻공원이 있다. 이곳에서 만나는 어필봉은 바위 봉우리에서 자란 소나무와 어울려 마치 붓을 거꾸로 꽂아놓은 형상이다. 전경에서 진황제가 천자를 향해 쓰던 붓을 던졌다고 해서 어필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정상부위에 구멍이 뚫린 천문산

장가계의 또 다른 비경인 천문산(天門山)도 경외감이 든다. 정상(1518m)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구멍 사이로 건너편 푸른 하늘이 보인다. 그 구멍은 천문동이라고 한다. 장가계 공항에 내리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장대한 장가계의 비경이며 구멍은 높이 131.5m, 폭 57m에 이른다. 천문산에 오르기 위해 타는 케이블카는 인간이 만든 위대한 인공구조물이다. 길이가 7454m에 이르러 약 40여 분 타야 하며 57개의 지지대는 절벽 위로 세워져 아찔하다. 케이블카 일부 경사는 37도에 이르러 주변에서 펼쳐지는 신비로운 자연비경과 함께 관광객들의 갑탄사를 자아낸다. 케이블카가 들어서기 전에 세워진 정상에 오르는 길은 180도 급커브가 적지 않고 99개 굽이를 돌아 산정상상으로 뻗어오른다.

장가계는 3억8000만 년 전 해저가 웅기하면서 생겨났다. 처음엔 사암으로 된 평평한 땅이었으나 오랜 세월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규암으로 굳어져 오늘날의 모습으로 변했다.

'장씨의 마을'이라는 뜻의 장가계는 BC 2000년 경에 장씨들이 거주한 연유로 이름이 붙여졌다. 오랫동안 외부와 교류가 거의 없었고 지금으로

부터 불과 20여 년 전 이 지역 출신 화가가 장가계의 산수를 담은 그림을 발표하면서 장가계는 중국 정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지난 1982년에 중국 최초의 국가삼림공원(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 1992년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됐다.

중국 장가계를 가는 길은 다양하다. 중국 베이징, 또는 상하이에서도 갈수 있지만 중국 동남연해의 하문(廈門)시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하문에서 장가계 공항까지 비행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가장 가깝다.



보타기산 보제사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천년고찰 '남보타사'.

해변풍경도시 하문

중국 북경성의 해변풍경도시인 하문시는 대만과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고 깔끔한 도시분위기가 인상적이다. 한해 평균기온은 20.9도로 기후가 좋고 풍광이 수려하며 사계절 꽃이 핀다. 공기 또한 신선해 하문시 해안도로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라톤대회가 열리기도 한다.

하문에는 고당서 등 유명 관광지를 두고 있다. 고당서(사진)는 길이 1900m의 작은섬으로 일광암, 속장화원, 해저세계 등이 대표적인 볼거리다. 일광암은 해발 92.7m로서 고당서와 하문의 경치를 보기 제일 좋은 곳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백조원으로 가서 새들이 갖가지 재주를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속장화원에는 중국에서 유일하고 세계적인 수준을 갖춘 피아노 박물관이 있다. 피아노 발전 역사를 대변하는 귀중한 피아노 70여대가 전시되어 있다. 해저세계는 답수어관, 돌고래 바다사자공연관, 세계에서 제일 큰 고래표본관, 해양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하문에서는 당나라때 건설된 사찰로 한국 불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남보타사를 비롯 화교박물관, 만석산식물원, 대만민속촌 등이 자리해 있다.

하문의 대표적 사찰 남보타사

당나라때 창건된 하문에서 가장 오래된 고찰이다. 약 3만m²의 부지면적을 자랑하는데, 북경성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우여곡절이 많은 하문의 역사를 상징하듯 3번의 소실과 4번의 증축 끝에 오늘날까지 건재한 모습을 과시하고 있다. 하늘로 날아오를 듯 한 중국 남부지방 특유의 처마가 인상적이다. 사원 내부의 주요 건축물로는 대웅전, 대비전, 장경각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 가장 핵심은 대웅전. 현세불인 석가모니불 외에 과거불인 구아함모니불과 미래불인 미륵불까지 3불이 한데 모셔져 있다. 대비전에 모셔진 4개의 화려한 관음상도 불교미술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니 빼놓지 말고 감상하도록 하자. 사원을 둘러본 후, 사원의 배후를 감싸고 있는 뒤쪽 나지막한 봉우리로의 짧은 트레킹도 권할 만하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항공편 중국 하문항공이 인천공항에서

하문공항까지 매주 수·금·일요일 운항하며 비행시간은 3시간. 격려여행사(www.greentravel.co.kr)가 하문-장가계 성지순례남보타사, 개원사, 범천사) 5박 6일 상품을 판매하며 상품가는 84만9천원. (02)778-9338.



◀ 무릉도원이라 부를 정도로 기암괴석들과 우뚝 솟은 봉우리들이 모여 형성된 장가계 풍경.

▶ 장가계의 또 하나의 자랑인 천문산 사이에 둘러있는 천문동은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감을 느끼게 한다.



LotusLanternFestival 燃燈祝祭

연등축제

불기 2551(2007)년 5월 18일(금)~20일(일)

전통등 전시회 5월 18일(금) ~ 5월 24일(목) 삼성동 봉은사

연등놀이 5월 19일(토) 오후 7:00~9:00 인사동, 조계사 앞길

불교문화마당 5월 20일(일) 낮 12:00 ~ 7:00 조계사 앞길

어울림 마당 오후 4:30 ~ 6:30 중대문 운동장

제등행렬 오후 7:00 ~ 9:30 종로 (중대문 → 조계사)

연등음악회·대중 한마당 오후 9:30~10:30 중각사거리

출연 : 마야, 클론, 김현성과 우리나라, 최진숙 등

불초위원회
www.연등축제.kr